

당신은 의사소통을 잘 하십니까?

Carolyn D. Townes, OFS, National JPIC Animator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당신이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당신이 보거나 들은 것이 사실은 당신이 받아들인 것과 전혀 다른 뜻인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까? 또는, 얼마 동안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대답을 준비하느라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실제로 듣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면 기운을 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잘못된 의사소통은 인간 경험에 보편적이며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자주 발생합니다. 잘못된 의사소통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는 받는 사람이 보낸 사람의 뜻을 다르게 이해할 때 발생합니다. 이 청소 서비스 광고를 보십시오. **"자신을 깨끗이 하는데 지쳤습니까?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또는 이 중고차 광고: **"중고차: 왜 다른 곳에서 가서 속으십니까? 먼저 이리로 오십시오!"** 유머러스 한 예가 될 수 있지만 요점은 같습니다. 쓴 사람이 의도한 것과 읽는 사람이 이해한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형제회나 가족생활에서 그러한 오해의 결과는 해롭고 또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갈등이나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여 확실히 이해를 하는 대신에 우리의 가정(假定)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더 많은 오해와 더 많은 분열로 이어집니다. 질문을 하면 이해의 가교를 쌓을 수 있고 좀 더 선명하고 보다 나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명확하게 한 후에는 대답을 잘 들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여러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에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맹인은 시력을, 절름발이는 치유를, 나환자는 깨끗이 되어 다시 사회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는지 물으셨습니다. 질문을 하면 보다 명확해지고 또 질문받은 사람의 뜻을 확인하게 됩니다. 질문은 그들에게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질문을 하시고 들으셨습니다. 좋은 대화는 말하기와 듣기의 양방향 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닫는 입과, 열린 귀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귀와 하나의 입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두 배 더 귀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더 낱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제 대답은 "좀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들으십시오. 더 조심스러운 의사 전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가정하지 마십시오.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판단이나 반박 없이 들으십시오. 참여적인 질문을 하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격렬한 대화에서 "지금 어떻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묻는 것이 가장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들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고치거나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언어나 문화가 다른 경우에는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이번 여름에 열리는 JPIC Animate Peace Gathering 에서 우리는 주의 깊고 비폭력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여 선명하게 이해하고 일치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오해는 갈등과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입니다. 주의 깊이 듣고, 험뜯지 않고 명확하게 질문하는 기술을 와서 배우십시오. 모임은 미조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2017년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townes26@hotmail.com의 Carolyn에게 전자 메일을 보내주십시오.